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First-half newbuilding orders stack up at seven-year high

상반기 신조선 발주량이 7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함. 상반기 2,190만CGT, 475억달러로 이미 지난 해 전체 실적을 능가한 수준임. 6개월래 발주된 신조선 중 절반이 컨테이너선임(1,270만CGT). (Tradewinds)

Shipowners face triple whammy in Europe's final ETS plans on emissions

EU집행위원회(EC)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세칙이 일부 공개됨. 1) 선주가 배출권 비용부담하고, 2) 유럽뿐만이 아닌 전체 항로에 적용되며, 3) 배출권을 통한 수익은 친환경 연료 및 기술 개발 지원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 7월 14일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도됨. (Tradewinds)

한국조선해양, 10척 8,350억 수주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해외 선사 5곳과 53,000DWT 전기추진 여객선(ROPAX) 2척, 86,000CBM급 초대형 LPG선 2척, 2,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 2,100TEU급 메탄을 추진 컨테이너선 1척, 1,800TEU급 컨테이너선 3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함. LPG선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3년 2분기 인도, 나머지 컨테이너선은 모두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 2023년 상반기에 인도될 것으로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미포조선, '컨'선 2척 수주

현대미포조선이 30일 공시한 2,800TEU급 피더 컨테이너선 2척은 Euroseas가 발주한 것으로 알려짐. 선가는 척당 7,600만달러임. Euroseas가 16년만에 처음으로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Opec delays meeting to Friday as UAE objects to new oil deal

OPEC 회의 2일로 연기됨. 사우디아라비아가 8~12월 일평균 40만배럴 증산을 제안했지만, 아랍에미리트의 반대입장 표명으로 결정이 연기된 것으로 보도됨. (Upstream)

현대로템, 호주에 1,545억원 규모 전기차 추가 공급

현대로템, 시드니에 2층 전기차 56량을 추가 공급한다고 공시함. 계약금액은 1.8억 호주달러로 작년 매출의 5.5%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도됨. (연합뉴스)